

같지만 다른 이름, 夫婦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www.consult.or.kr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과거보다 배우자의 조건만 따져 결혼하는 경우가 줄었다.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거나, 남성은 재혼인데 여성은 초혼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결혼 전에 아무리 서로 마음이 맞았다 할지라도 결혼생활 도중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부모님으로서도 당연히 문제삼아 결혼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젊은 두 사람은 오직 자신들의 사랑 하나만을 믿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민〇〇씨 역시 그런 용감한 선택을 감행한 사람 중의 한명이다. 사회 동아리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에게 어떤 신비감과 삶의 질곡같은 것이 느껴졌고 이러한 느낌이 든든했고 신뢰감을 주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밖에 못 나온 남자의 학력이 대학원까지 마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했다. 주위의 반대가 심할수록 어떤 오기 같은 것이 발동했다.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신문 한 줄, 책 한 줄을 읽지 않고 오로지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이 견디기 힘들어요. 주위친구들을 만나도 그는 너무 작습습니다. 전 다시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이 참 많은 걸 의식하게 하네요. 남편에게 강의를 추천해도, 그건 여유가

있거나 모자란 사람들이 듣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 이런 고민이 결혼생활에 장애가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점점 우습게 보이고 소외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사실, 누구나 이런 차이를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또, 결혼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각오하지 않은것도 아니다. 다만, 이 경우처럼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한다. 단지 목표에 대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부부간에 이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자의 개별적인 의견을 가진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부부일심동체는 잠시동안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부사이에 많은 긴장과 실망을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관계가 이상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불행한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두 사람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것으로 족하다. 부부는 각자의 인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펴주어야 한다.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끔 결과만을 공유하려는데서 서로에게 찢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부부일심동체는 환상

결혼한지 3년이 된 신혼기를 지난 부부, 아내 박○○씨는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야속하기만 하다. 그럴 때마다 연애시절과 비교하면서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닌가요?"

신혼부부든 수십년 결혼생활을 한 부부든, 부부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표현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대 수준을 실현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두고 쓰라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대개의 경우 부부를 건강한 관계로 이끌지도 않는다. 일심동체의 상태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한 요소

인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 주길 은연중에 기대하거나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야만 이상적인 부부관계라는 허상을 만들어낸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부부간에 이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자의 개별적인 의견을 가진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부부일심동체는 잠시동안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부사이에 많은 긴장과 실망을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관계가 이상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불행한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건강한 부부들은 각자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 개별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견이 있을때 협상을 통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도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각자의 경계를 지켜 주고, 그러면서도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심이체' 부부들은 일심동체 부부들보다 서로 훨씬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타협안을 더 쉽게 도출해 낸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생각을 깰때 비로소 각자는 한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더 개발시키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